기아차 쏘울EV 美 CES 데뷔 … 2030년 완전 자율주행시대 연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핸들 조작 안해도 자동 주행, 차선 변경
스마트워치 조작으로 차량 콜·자동 주차
‘드라이브 와이즈’ 신규 브랜드 론칭

첨단 자율주행 기술로 무장한 기아차 쏘울이 지상 최대 IT전자쇼 무대인 CES 경연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기아차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쏘울EV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결합한 모델이다.

이 차량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LKAS)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등 자율주행 기술뿐 아니라 기아차가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자율주행 선행기술도 적용됐다.

쏘울EV 자율주행차에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주행 시 스티어링 휠(핸들)과 엑셀레이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자동으로 달리는 기술이 탑재됐다. 또 카메라와 센서의 조합을 통해 주변 차량을 인지하고 차선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기능도 갖췄다. 지난달 9일 출시한 제네시스 ‘EQ900’의 자율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술이다.

또 쏘울EV 자율주행차는 도심에서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주행하는 기능, 차선이 없는 구간이나 도심 내 공사 구간 등에서 선행 차량의 주행 경로를 인식한 후 자동 주행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교통 혼잡구간에서는 차선과 주변 차량 정보를 계산해 자동으로 주행하거나 끼어들 수 있고 운전자 얼굴과 시선을 인식해 비상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갓길에 정차한다.

스마트워치 조작만으로 운전자의 위치까지 차량을 자동으로 부를 수 있고, 공간을 인식해 자동으로 주차하는 시스템도 적용됐다. 쏘울EV 자율주행차는 차량에 탑재된 GPS와 정밀지도를 이용해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한다. 또 차량 전·후·측방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차량, 보행자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해 실제 주행에 반영한다.

기아차는 또 CES에서 자율주행 기반 기술 브랜드 ‘드라이브 와이즈(DRIVE WISE)’를 런칭했다.

기아차는 이번 신규 브랜드 론칭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당면과제는 2020년 부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달성하는것이다. 2030년에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자동차와 IT 간 융합을 통한 최첨단 기술력 확보하는데 주력해 미래 스마트카 시장을 이끄는 선도 업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자율주행의 법적문제도 15년후면 해결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문제가 스스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황승호 기아차 차량IT기술개발센터장(부사장)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이 바뀌지 않겠는가”라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스마트폰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처럼 2030년쯤에는 자율주행차의 법적 책임 문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해결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가 2016 CES에 출품한 쏘울 EV 자율주행차의 주행 모습. 〈기아차 제공〉

지난 6일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6 기아자동차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첨단 자율주행 기술로 무장한 쏘울EV에 탑재된 모든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체험’을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사 2015년 임금협상 타결

기본급 85000원 인상
임금피크제 확대 올해 협의

기아차 노사가 2015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출한 노사간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날 조합원 표결에 들어간 결과 64.3%의 찬성으로 합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앞서 노사는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와 관련, 현재 시행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섭에서 확대 방안을 합의, 시행키로 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한 뒤 계속 논의해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은 악화된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기본급 8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포상금 400% + 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 + 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 주식 55주 및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으로 합의했다.

한편 임협 타결 조인식은 12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K7, 7년만에 ‘풀체인지’

국산 첫 전륜 8단 변속기
오늘부터 사전 계약 돌입

기아자동차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올 뉴 K7’에 국산 최초로 전륜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기아차는 11일 남양연구소에서 사전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2일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

2009년 첫선을 보인 이후 7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인 ‘올 뉴 K7’은 3.3 람다Ⅱ 개선 엔진 적용, 동급 디젤 최고 연비를 구현한 R2.2 디젤 엔진 적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등 국내 최고의 준대형 세단으로 탈바꿈했다.

40대 이상이 주 판매 타겟이며 토요타 아발론이 경쟁 차종이다.

가격은 2.4 가솔린 모델과 2.2 디젤 모델이 각각 3080만～3110만원, 3360만～3390만원 수준이다. 3.3 가솔린 모델은 3480만～3940만원으로 책정됐다. 3.0 LPi 모델은 2640만～3110만원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 183만대 ‘사상 최대’

개소세 인하·신차 출시 효과
전년보다 10.4% 증가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 레저용 차량(RV) 수요 증가 등으로 183만대로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생산은 수출 감소와 자동차노조 파업에도 0.7% 증가하고, 수출은 러시아와 중남미, 중국 등 신흥시장 경제 침체로 2.8%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자동차 내수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8.27～12.31), 신차 출시, RV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한 183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자동차 내수판매는 2011년 157만7000대, 2012년 154만1000대, 2013년 154만대, 2014년 166만1000대, 2015년 183만3000대 등이다.

내수판매 중 국산차는 개소세 인하와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RV 수요 증가, 신차 출시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한 156만대에 달했다.

지난해 출시된 국산 RV는 티볼리(1월), ‘올 뉴 투싼’(3월), ‘THE SUV 스포티지’(9월) 등이다.

수입차 판매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도 수입차에 대한 선호 확대와 마케팅 강화, 다양한 신모델 출시 등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한 28만대를 나타냈다.

수입차 중에서는 BMW,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셰 등 독일 브랜드가 60.7%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수출 감소와 하반기 자동차사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에도 내수판매 호조로 전년보다 0.7% 증가한 456만대를 기록했다. 앞선 3년간 생산 실적은 2012년 456만대, 2013년 452만대, 2014년453만대 등이다.

작년 자동차 수출은 북미와 유럽연합(EU) 등지로의 호조세에도 러시아, 중남미, 중국 등 신흥시장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298만대를 나타냈다.

경차 수출 증가와 국제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평균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금액은 전년보다 6.4% 감소한 458억달러로 집계됐다.

2012～2014년 3년간 자동차 수출액은 각각 472억달러, 486억달러, 489억달러 등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인 북미, EU, 태평양 지역 등지로 수출은 증가했으나 동유럽·중남미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축소됐다.

차급별로는 다목적 차량이 신형 투싼, 스포티지 등 신차 효과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확대로 경차와 더불어 수출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완성차 국내 판매는 개소세 인하와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5% 증가했으나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감소 등으로 수출과 생산은 각각 5.6%와 6.5% 감소했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궁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 동·서양란,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

해 뜨 는 집
동구 대의동 78-3번지 전일빌딩 뒤
고등어 구이 정식, 묵은지 등 뼈찜
묵은지 고등어 말이, 고추장 양념구이
(야간) 각종 술안주 일체
대표 박현희 ☎062)228-9233

혜택을드리는기업(주)JK상조
서구 상무중앙로 28번길4
(세진빌딩 704호)
직영장례식장 운영(무등장례식장, 만평장례식장, 해피뷰장례식장)
대표 이성희 ☎010-8542-3366

구 수 향
동구 예술의거리 원불교 건너편 골목
생고기 비빔밥 전문, 짱뚱어탕,
한방오리, 오리로스, 예약손님 환영
대표 오순옥 ☎062)266-7200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010-2611-7687

한 마 음 축 산
북구 두암동 라인동산@앞
최고급 한우를 최소가격으로 판매
등갈비, 포천식 왕갈비, LA갈비
선물용 포장가능
대표 김진선 ☎062)251-8892

다 미 울
북구 풍향동 백림 약국 건너편
천연염색의류, 인테리어 소품, 의상 자수 수선
한복수, 마크수, 헌옷 예쁜 자수로 리폼
26년 경력 의류 자수
대표 고진순 ☎010-8261-5205

대 박 당 구 클 럽
북구 각화동 주공@정문옆 2층 (구,백제당구장)
최신형 헐리우드 열선 다이설치 완비
국제식 대대 설치보유, 쾌적한 공간 최대의 서비스
초보자 일대일 사장님 개인지도
☎010-3637-9123

오 리 나 라 만 세
북구 중흥동 333-26번지
(전대정문에서 50미터 지점)
약오리, 옻오리, 오리탕, 오리주물럭,
오리로스구이, 아구찜, 아구탕
☎062)522-7333

현대힐스테이트공인중개사
북구 각화동 224-1(2층)
토박이가 운영하는
토지 및 상가 전문 중개사무소
☎062)511-1161, 010-7723-1201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육청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광주척추신체교정원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의상실옆)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뚱 이 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쭈꾸미, 붕장어, 샤브샤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이 가 회 관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찜,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단체모임예약환영
대표 이복례 ☎062)224-1541

르 로 제 꽃
북구 용봉동 425-2번지
(용봉동 개인택시 신협 옆)
꽃향기 감촉 설렘이
매일 가득한 감성 꽃집
대표 박정호 ☎062)413-7673

광 주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한국기담명리철학학회
북구 우산동 205-18번지 근린공원옆
개인단체 환영 (강의내용 : 사주, 음권, 양권, 사주학, 수지침, 수족침, 이침)
☎062)432-1324